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 나무심기·환경정화 활동
SK네트웍스가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7일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지난 5일 이호정 SK네트웍스 대표이사과 구성원 20여명은 남산공원을 찾아 무궁화 모종 200그루를 심었다. 아울러 SK네트웍스 및 자회사 민팅 임직원 40여명은 여의샨강생태공원에서 곤충 등의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에코 캠페인'을 진행했다. /SK네트웍스



DGB금융그룹, 더블기부사업 기금 전달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5일 DGB대구은행 제2본점에서 한국부동산원,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네티즌 기부만금 기업이 함께 후원하는 더블기부사업을 위한 사업비 전달식을 진행했다. 신우현 DGB금융지주 CSR추진부 부장(왼쪽부터), 이미경 네이버 해피빈 리더, 부순웅 한국부동산원 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GB금융그룹



대상, 봄맞이 청계천 환경정화... 150명 참여
종합식품기업 대상은 지난 5일 봄맞이 청계천 환경 가꾸기 '청계야미' 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청계야미' 활동은 대상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9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임직원 1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청계천 환경 개선을 위해 꽃 심기,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대상



풀무원아카데미-중부산림청, 소나무 3000그루 식재
풀무원아카데미가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중부지방산림청과 함께 5일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일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 김중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 주진희 건국대학교 교수, 오경석 풀무원 지속가능경영실장, 유찬일 풀무원아카데미 센터장 등 120여명이 참석해 소나무 3000 그루를 식재하며 숲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풀무원



한신대, '신진교원 교수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한신대학교는 지난 4일 오후 4시 경기캠퍼스 장공관 1318 회의실에서 '2024 수요자 중심 교육을 위한 신진교원 교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이인재 부총장, 최창원 교무혁신처장, 차윤정 학생지원처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한신대학교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스토킹처벌법)과 관련된 사건이 늘고 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토킹범죄란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 2호).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적으로

하는 위협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스토킹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때 스토킹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에 대해 법원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인종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거나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행위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복되

는 경우 그 일련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이는 스토킹행위로서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일례로 이혼 후 남편인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행위를 했는데, 그 중 일부 행위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사안이 있었다. 대법원은 "그 일부 행위는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관계로 평소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고, 평소 술을 마시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자녀들을 보러 집에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누수 및 전기공사 등에 관여한 바 있는 등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경위, 사건 직후 피해자의 인종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일부 행위가 그 자체로 객관적, 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는 그 행위의 본질적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돼 누적될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위 일부행위 이외에 피고인 스스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다른 행위들이 위 일부행위들 사이에 단기간에 반복되었는바 그렇다면 위 일부행위도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행위들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누적되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안전 자동화 항만 'DGT' 구축 STS 등 모든 하역장비 국산화



지난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추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DGT, 부산항 신항 7부두)'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스마트 항만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동원그룹은 김남정 회장이 지난 5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 DGT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에서 개최한 DGT 개장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준근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과 항만물류업계 관계자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동원그룹의 항만 물류 계열사 DGT는 5일 본격 개장한 국내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인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의 운영사다. DGT는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내리는 하역부두 장치장에 옮겨 쌓는 이송, 적치

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으로 작업한다. DGT는 서컨테이너 피더 부두(2025년)와 2-6단계(2026년)까지 개장하면 총 길이 2135m의 6개 선석과 140만㎡ 규모의 야드를 보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거듭나게 된다. DGT는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의 완전 자동화를 위해 최신 하역 장비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도입했다. 특히 무인이송장비(AGV)와 컨테이너크레인(STS) 등 모든 하역장비를 국산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자동화터미널 운영시스템(TOS)에 의해 작동하도록 설계해 부산항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경희사이버대 NCI 최우수 기관 선정

(국가브랜드경쟁력 지수)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가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뉴욕페스티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사이버대학 부문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CI, 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는 2001년 설립된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으로 이번 NCI 선정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교육 콘텐츠 시상식에서 다수 수상하며 원격교육 영역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현진 기자 ihj@



LX판토스 '재생의 숲'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지난 5일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아촌리 산불 피해지역을 찾아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X판토스

LX판토스, 강원 '재생의 숲' 첫 발

LX판토스가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의 산림복원을 위한 ESG 프로그램인 '재생의 숲' 5개년 계획을 시작한다. 7일 LX판토스에 따르면 지난 5일 LX판토스 '숲지킴이 봉사단' 25명이 강원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아촌리 산불 피해지역에 아카시나무 600그루를 심으며 재생의 숲 프로그램의 첫발을 내디뎠다. 숲지킴이 봉사단은 이번 나무 심기 이후에도 2028년까지 매년 꾸준히 식목, 보식 등 활동을 진행하며 총 3600그루의 아카시나무를 만들어 가꿀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음

- ▲ 노신만(전 대한통운 부사장·향년 92)씨 별세, 박현열(영락교회 권사)씨 남편상, 노유미(전 지엘에이디베이트학원장)·노연순·노한수(재미 치과의사)씨 부친상, 윤의연(전 우리카드 부사장)·이장익(전 한국유류주립대 교수)씨 장인상, 우주현씨 시부상 = 6일 오후 10시 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9일 오전 6시 40분,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2-3010-2000
- ▲ 김형태(전 국회의원·향년 73)씨 별세, 이순자씨 남편상, 김유진·김수진·김승욱(연합뉴스 사회부 사건팀장)씨 부친상, 주진형(공인회계사)·기호진(애플 본사 ML 엔지니어링 매니저)씨 장인상, 정아란(연합뉴스 정치부 차장)씨 시부상 = 7일 오전 1시,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2227-7590
- ▲ 이준년(향년 87)씨 별세, 임현규(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임철규·임현미씨 모친상, 송은주·이경희씨 시모상, 송화섭씨 장모상 = 7일 오전 9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9일 오전 5시, 장지 서울추모공원·부산추모공원. 02-2227-7500
- ▲ 김순복씨 별세, 최창민(경남일보 국장)씨 장모상, 염명애(진주경찰서 하대지구대 경감)씨 모친상 = 7일 오전 5시 30분, 경상국립대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9일 오전 7시, 장지 함양하늘공원. 055-214-1900
- ▲ 윤혜원씨 별세, 고(故) 심명구 선광전 회장 부인상, 심장식(선광 회장)·심충식(선광 부회장)·심현식·심명식씨 모친상 = 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 발인 9일. 032-2227-7584
- ▲ 김기선(공인회계사)씨 별세, 김한중(매일경제 이사)·김희종(요리연구가)씨 부친상, 허정선씨 시부상, 김혜주씨 조부상 = 7일 오전 8시 45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02-2072-2010